

드라마 주인공에 사회일탈형 여성상 대거 등장

‘여성 지위 향상 때문’ 해석은 무리, 가부장제 압박에 의한 피해자일 뿐

적나라한 피해자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입장은 정확히 두 개로 갈라진다.

이은주 씨(22세, 대학생)는 “주로 나이가 많은 어머니 또래 분들은 이들을 ‘나쁜 여자’라고 몰아세우는 반면 나 같은 젊은 여성들은 이들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편”이라며 “때때로 인습을 파괴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시원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한다.”고 말한다.

서류를 집어던지는 여성, 성난 여성의 이미지가 새로이 각광받는 섹스심볼로 등장하고 있는 등 광고나 영화에서도 이와같은 여성상의 묘사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나라 기자)

드라마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변하고 있다. 물론 청순가련형 일반도에서 적극적인 현대 여성을 내세우는 식의 변화는 전부터 있어온 것. 그러나 이즈음에 와서는 전통적 사고로 보면 ‘악녀’임이 틀림없는 여성상들이 공공연히 주인공으로 등장,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MBC <폭풍의 계절>, KBS 미스터리 멜로 <금요일의 여인>의 <홍리나>·<선우은숙> 편, 얼마전 끝을 맺은 SBS 아침 드라마 <사랑의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심리의 폭발형, 범죄형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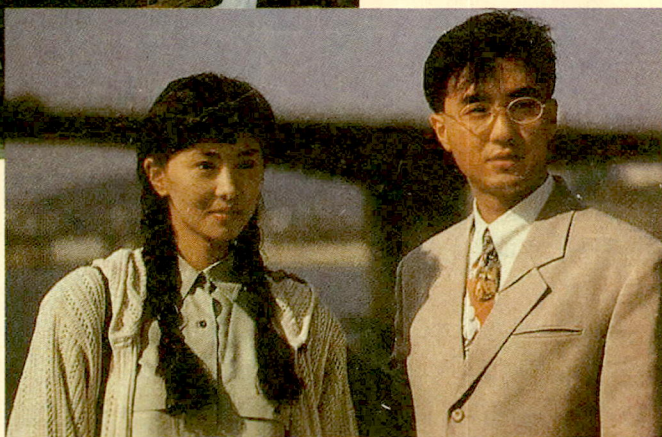
<폭풍의 계절> 주인공인 홍주는 복잡한 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저돌적으로 세상에 돌진해가는 여성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도 한순간의 분위기와 결단에 의해 순결을 건져버린다거나 상식 밖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주변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스스로 자유인임을 공공연히 주장하는가 하면 결혼 따위는 인생의 틀이자 감옥일 뿐이라는 급진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금요일의 여인>도 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은 여성을



◀<금요일의 여인> 홍리나의 ‘위험한 선택’ 편.

▼얼마전 막을 내린 sbs 아침드라마 <사랑의 조건>의 한 장면.



사창해 부를 장악하려는 여성과, 교묘한 속임수와 이중적인 생활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아올린 수수께끼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랑의 조건>의 유미는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몰락한 애인의 아이를 지우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감행한다. 결국 그 사실이 밝혀져 파멸에 이르고 마는 전통적인 악녀 스타일이다.

이 외에도 전 같으면 그저 비뚤어진 부정적 여성상으로 보였을 ‘준 악녀’들을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도 다수 눈에 띈다.

MBC 주말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경서, SBS <백의의 남편은 어떠십니까?>의 도도희,

KBS 드라마 <연인>의 전마리 등. 버릇없고 이기적인 여대생이나 유부남과 공공연히 데이트를 즐기는 여성, 친구의 애인을 유혹하는 동시통역사가 이들의 모습이다.

“무조건 당하는 여자 재미 없다”

그저 도전적이고 활달한 여성을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던 드라마가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선한 여성’만을 등장시켜서는 시청자의 구미를 당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인 듯. 조연출을 맡고 있는 한 프로듀서는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여자의 미덕이나 수퍼우먼과 같은 완벽한 지성과 덕성의 여성에게 시청자들이 더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반적인 여성 지위의 향상이 이같은 캐릭터를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이도 있다.

물론 그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영향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드라마들의 여성상이 실제 해방된 여성의 면모를 갖추고 있거나 전사적인 여성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은 옳지 않다.

중년층 “재수없다” 젊은 층 “피해자일 뿐, 동정”

<폭풍의 계절>의 홍주는 극중 인물 대부분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다. 그의 지나친 반항과 도전은 가부장적 굴레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의 대물림이다.

<금요일의 여인>의 주인공



◀<폭풍의 계절>의 주인공 홍주역을 맡은 탤런트 김희애.